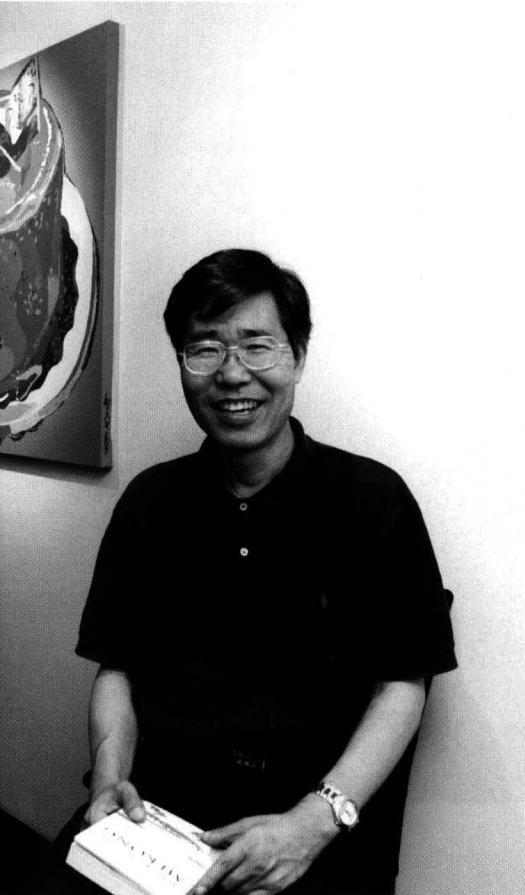


여행전문가 권삼운 씨

여행은 자기가 준비한 만큼 얻는 아날로그적 체험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권삼운 씨가 본격적인 여행전문가의 길로 접어든 것은 1990년대 중반 세계문화유산 답사기를 (조선일보)에 연재하면서부터였다. 명함에 새겨진 '문명 비평가, 역사 여행가'라는 명칭처럼 그가 집필하는 여행서들은 인문학적 냄새가 짙은 역사 여행서들이다.

“여행전문가란 여행을 통해서 생업을 영위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테마를 갖든, 지역성을 갖든, 에세이적 감성을 갖든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두브로브니크는 그날도 누부셨다》 등 20여 권이 넘는 역사 여행서를 집필한 그에게 '문화여행'이란 테마로 여행서 추천을 부탁했다. 그는 먼저 《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사람들》(박준 지음 | 넥서스) 《정열의 방랑자, 프레야 스타크》(제인 플레처 제니스 지음 | 이은주 옮김 | 달과소)

《칭짱철도 여행》(왕목 지음 | 양성희 옮김 | 삼호미디어) 세 권의 책을 추천했다.

“《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사람들》은 방콕의 카오산 로드를 여행 중인 장기 배낭여행자들에 대한 인터뷰집입니다. 21세기식 여행풍속도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죠.

《정열의 방랑자, 프레야 스타크》는 유명한 여성 탐험가 프레야 스타크의 평전입니다. 그녀의 여행과 저작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책이지요. 20세기 초반 서양인들이 여행의 불모지들을 어떻게 개척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시

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여행자의 정신이나 태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두 권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20세기와 21세기 달라진 여행 지형도를 그릴 수 있어서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칭짱철도 여행》은 지난 2006년 개통된 칭짱철도로 티베트를 여행한 기차여행서입니다. 중국 내륙과 티베트를 잇는 이 철도에 관한 정보는 아직 전무한 상태인데, 이 책에는 인터넷으로도 구할 수 없는 실용적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그는 여행 중에도 많은 책을 사는 편이다. 그 지역에 관해서 잘 모를 때는 서점부터 들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사진 위주의 여행서가 대세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글 위주의 여행서와 사진 위주의 화보집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고. 그는 세 권의 책에 덧붙여 원서도 한 권 추천했다. 《Mad about the Mekong》(John Keay 지음 | HarperPerennial).

“기자 출신의 저자가 메콩 강이 흐르는 지역, 태국·베트남·캄보디아·인도차이나 등을 직접 돌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쓴 여행서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에 대한 내밀한 부분까지 짚어내는 저자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려는 사람이나 여행한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여행은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자신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행위이다. 그러나 그는 '자유로움'과 '목적의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여행을 하는데 '목적의식'이라니 얼핏 모순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에너지, 돈을 투자해서 여행을 떠날 때는 만남이나 앎 또는 휴식처럼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행은 자기가 준비한 만큼 얻는 아날로그적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좋은 여행서는 더할 나위 없는 나침반이 되겠지요.”

